

2024년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하계학술대회 참가 후기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영상미디어연구실



김종욱 (학부연구생)

이번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하계학술대회는 산업과 미디어의 동향에 대한 세션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삼성, LG, 어도비와 같은 대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 트렌드를 소개하고, 입사에 필요한 역량과 준비 사항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삼성은 인공지능의 생성형 모델 기술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고, 어도비는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의 연계를 강조하며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기업들은 콘

통적으로 기존 기술의 철저한 이해와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혁신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중요한 점은 기존 기술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신 기술의 트렌드를 알고,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기존 기술과 융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 생성은

기존의 미디어 제작 기술을 잘 알아야 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술을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도 소개되었습니다. 이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기술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응용 방법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하계학술대회는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기술 트렌드와 대응 방법을 배우고,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최승미 (박사과정)

이번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하계학술대회는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영상 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투토리얼 세션, 논문 발표, 산업체 초청 강연, 청년 취업 특별 세션 등이 있어 최신 인공지능 트렌드를 폭넓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세션은 “확산생성 모델 기반 최신 영상 합성 및 변환 기술”, “3D Novel View Synthesis with NeRF and 3DGs”, “Learned Image Compression and JPEG AI” 등이었습니다. 최근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들이 투토리얼 세션을 통해 기본 개념부터 최신 동향까지 상세히 다뤄져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홀로그래피 특별 세션은 매우 유익한 연구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staff로 참여하였는데요, 그래서 특히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학술 대회 시작 전 행사 준비, 세션 운영 등을 담당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학술대회 기간 동안 많은 연구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시각과 접근법을 배우는 값진 시간이었고, 이는 앞으로의 연구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 참여는 학문적 성장뿐만 아니라 실무적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태화 (석사과정)

학부생이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튜토리얼 세션을 통해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다른 연구자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청중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발표의 기술을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이번 튜토리얼 세션에서 흥미롭게 들었던 주제는 Diffusion 모델이었습니다. 이 분야는 난이도 높은 논문들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튜토리얼 세션은 이 분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길라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의 발표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는 저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중 앞에서 발표하는 경험은 발표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발표장의 좌장님께서 저의 발표를 높게 평가해 주셔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명예도 얻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학술대회 참여를 통해 튜토리얼 세션에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연구 발표를 통해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며, 발표 경험을 통해 발표 기술을 향상시키는 등, 학부생으로서 최고의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조수현 (석사과정)

이번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하면서, 영상 처리 도메인에서의 최신 연구를 폭넓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4일간 짜임새 있게 구성된 프로그램 및 세션에 참여하면서 최신 연구 트렌드를 파악하고, 연구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튜토리얼 세션과 특별 세션, 논문 발표 세션에서 각각 이론적인 지식, 현재 산업 및 연구 동향, 구체적인 연구 노력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도 인상적이었지만, 특히 질의응답 시간이 매우 뜻깊었습니다. 같은 연구를 하고 있기에 할 수 있는 질문, 다른 연구를 하고 있기에 할 수 있는 질문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연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괴상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학술대회에 참여할 때는 제 연구 분야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고, 보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향후 연구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였고, 개인적인 성장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지현 (석사과정)

이번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하계학술대회는 대학원에 입학한 이후 처음 참가하는 학회였습니다. 학술대회에 처음 참가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는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쌓은 상태에서 참석한 첫 학회였습니다.

딥러닝을 이용한 압축이라는 분야는 다른 분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하계학술대회는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만나 질문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키워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산업체 초청 강연에서는 평소에 접점이 없던 기업에서 미디어와 관련하여 AI를 활용하는 여러 사례들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미래를 위해 연구하는 모습들을 보며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 진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술대회에 참가하면서 1년을 버틸 힘을 얻곤 합니다. 학생으로서 연구하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연구를 위한 중요한 원동력으로 남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준영 (석사과정)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학술대회는 연구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로 연구 결과물이 많이 발표되어 매년 참석하고 있으며, 올해는 더욱 다채롭고 우수한 연구 결과들이 많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 생성 및 압축 기술의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튜토리얼 세션에서는 영상 합성 및 변환 기술, 3D Novel View Synthesis, Learned Image Compression and JPEG AI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Adobe Research와 삼성전자종합기술원, SKT에서 발표한 생성형 AI 비전 기술을 활용한 연구 동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디지털 홀로그래피 특별 세션은 큰 도움이 되었으며,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다른 연구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연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과 영상 콘텐츠 생성 및 압축 기술에 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연구와 산업 응용 사례를 접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디지털 홀로그래피 분야에서의 특별 세션은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